

너부터

79

2016 하반기

〈나눔터〉 79호를 함께 만든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임당 _곰지



스마일정화 _정화



키다리청년 _레드



겨울의새싹 _동아



순수소행성 _동동



예비불펜러 _수진

퍼넌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퍼넌이 이미경 퍼넌날 2016년 12월 30일 만든지 노선이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 02-338-2890~2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4 Queer I Am, 우리존재 화이팅!
- 8 자기방어훈련을 마치고..
- 12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 14 내 거친 눈빛과 불안한 마음과 개소25주년 후원의 낮과 밤
- 20 낯설음과 친밀감의 거리에서
- 24 민사로 본 한국과 일본의 성폭력 생존자의 권리
- 26 To. 가해자에게, 그냥 말할 때 길거리괴롭힘을 그만뒀주라

28 댄다!상담소

32 열림터 다이어리

34 성폭력과 사람들

- 34 생존자가 말하는 작은말하기
- 36 여주인공 로지
- 37 어른은 없다

38 만나고 싶었습니다

- 38 상담소 OLD & NEW_후원회원 편
- 42 살림치과 방문기

46 성문화읽기

- 46 성매매 과정에서 성폭력은 가능하다
- 50 임의번호를 구하라

54 시끌시끌상담소

- 54 철원에서서의 재충전 시간

58 아낌없이 주는 나무

60 훈훈한 기부

2016 퀴어문화축제

Queer I Am! 우리존재 화이팅!

조용연_나눔터재단



2016 퀴어문화축제 공식포스터
(이미지 출처: www.kqcf.org)

올해로 열일곱번째를 맞이하는 퀴어문화축제가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QUEER I AM, 우리 존재 파이팅!'이라는 공식 글로건에는 사회 속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여기에, 우리 그 대로의 모습으로, 퀴어하게 존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울광장에서는 축제를 즐기는 성소수자와 지지하고 옹호하는 각 단체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기념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즐거움을 더해 주었으며, 좋은 정보를 나누기도 했다.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스에서는 길거리괴롭힘 사례를 제보받기도 하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상담소의 자원활동가로서 카테일맥주(레몬, 자몽, 더치커피) 판매에 함께 하면서 더욱 신나고 즐겁게 퀴어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아쉽게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역대 최장코스였다는 행진(Pride Parade)은 서울광장 주변으로 5만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걸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연대의 대향연을 펼치기도 했다.

수많은 축제 가운데 하나인 퀴어문화축제가 같은 시·공간은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만큼 성소수자로서의 삶도 누구나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이다. ☺

{ 사진으로 보는 2016 퀴어문화축제 요모조모 }



부설 센터 열림터의 생존자 치유 프로그램

자기방어훈련을 마치고!

그녀_“진정한 생존자”

지난 7월 1일 열림터에 입소하면서 시작한 자기방어훈련은 “이제는!”이란 말을 계속 외치며 무기력한 나의 몸을 깨어나게 했다. 다부진 몸매, 지적인 힘과 몸에 배어있는 어떤 자신감이 매력적인 최하란 선생님과 온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지성이 넘치는 류운 선생님은 작은 외침 속에 엄청난 힘이 있었다.

프로이드는 ‘공격성이 성적인 충동으로 대상을 얻기 위해 그 대상을 장악하고 굴복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리비도에 공격적인 요소가 원초적인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 보고 있다. 가해자는 퇴행적 공격성을 무기삼아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에게 다가온다. 이러한 퇴행은 나르시시즘적인 퇴행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리비도의 자아가 환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퇴행 속에서 자기 비난이 구조적으로 동일시되며, 또한 공격적인 퇴행을 현실적으로 부정하거나 강박 중에 시달린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피해자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다가왔을 때의 간단한 손놀림과 빠른 발로 피하기. 상대에게 작은 반항적 소리 지르기는 삶에 기본이었다.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사건 당시 상황과 동일시되면서 몸의 힘이 없이 굳어져 버렸다. 1차사건 당시 가해자의 목조르기로 세상은 까만 밤처럼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흥기가 사용되었던 2차사건 때는 죽음의 상황이라 느껴져 차라리 체념하게 되었다.

나치의 강제수용소 생존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을 매일매일 목격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차라리 체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끝이구나’라고.. 실제로 자기방어훈련 중 목조르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나 흥기든 상대를 대하는 방법 등 사건과 동일한 상황 설정일 때는 매번 몸의 경직을 경험했다.(흥기를 든 사람을 피하는 방법은.. 그 날 훈련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현재 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나를 비롯해 함께 참가했던 성폭력피해자 10여명도 각자의 사건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고 외마디 외침들을 하고 자기방어훈련을 했었다. 참가자 누군가 터뜨려 울기라도 하면 함께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같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 순간 함께였다. 서로서로를 이해하기에 그랬었다.

성폭력 속에 가해자의 행동들이 떠오르고 순간순간 위기를 느낄 때마다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이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았으니 새로운 삶을 사는 생존자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곧 다시 올 거라는 위기, 몸으로 느끼는 아픔 속에 고통들은 철저히 현실이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자라면 누구나 몸으로 생물학적 남자라는 공격적인 동물성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훈련을 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 공간에 있는 누군가 내게 다가온다면’과 같은 상황을 설정하고 자기방어훈련 내용을 떠올리며,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최하란 선생님!! 류운 선생님!! 당신들이 만든 ‘진정한 생존자’ 그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NO 경직! 라운드테이블 : 성교육 간담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동아동芽_나눔터기재단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모 초코과자 cf의 배경음악, 듣기만 해도 두 사람이 천천히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절로 상상되는 이 노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성교육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노래가 아닐까. 딱히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알아서 착착, 제대로 된 성관념과 지식을 갖추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굳이 양육자가 되어보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성범죄들과 수면 아래서 조용히 끓어오르는 상처와 혼란들은 무책임한 성교육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2016년 8월 2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교육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청소년, 양육자(학부모), 교사, 성교육 전문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 제대로 된 성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담회는 패널 여섯 명의 발표와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여성주의저널 일다에 칼럼 <초딩아들, 영어보다 성교육>을 연재한 김서화님은 초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육자로서 아

이와 성에 관해 대화하기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키워드를 ‘피해’에서 ‘가해’로 옮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키워드를 피해에 두면 힘이 없는 쪽이 움츠러들지만 가해에 두면 힘이 있는 쪽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상대적 강자와 약자의 위계를 오가는 모두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대부분의 부모-자식 간 성교육의 ‘성’이 단지 “침대 위의 일”로 한정된다는 김서화님의 지적은 한국여성의전화 재재 인권정책국장의 발표에서도 이어졌다. 재재님은 ‘성’을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밝히며 일련의 제도적 흐름 속에서 ‘성’은 ‘폭력과 위협으로서의 성’이며 성교육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즉, (성)폭력예방교육으로 주요하게 구성됨을 지적했다. 이러한 협소하고 왜곡된 담론은 성을 둘러싼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적 규범과 남성중심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임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성적 감수성과 실천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여성주의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의 노력을 방해한다.

제도화된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문제적’ 흐름들과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치리 활동가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치리님은 성교육 시간만 되면 “고장 난 라디오”마냥 똑같이 반복된 이야기들을 비판했다. 지나치게 생물학적이고, 섹스에 죄책감을 부여하며, 사춘기 남성들의 성욕을 강조하여 여학생들을 위축시킬뿐더러 위의 모든 과정들에 ‘순수’라는 가치를 연결시키는 “무책임하고 예의 없는” 성교육에 대한 치리의 비판은 모두를 씩씩하게 했다.

청량고등학교 최규영 보건교사는 2016년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지적해냈다. 성교육이 독립된 교과가 아니라 시수 확보 등이 어렵다는 점, 현재 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더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이 가진 한계 등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영님은 성교육이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 대다수가 간절히 원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뒤이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이 부장은 여러 현장 사례들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성교육 대안을 제안했다. 포르노는 10대들의 성 의식 뿐만 아니라 언어 속에도 깊이 침투해 왜곡된 성 관념과 정보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성찰 없는 무분별한 성적 대상화로 인한 또래 간 성폭력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연애와 성’에 대한 관심이 ‘스킨십 진도’와 ‘성기 중심적 섹스’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관계에 대한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이미 성적 주체로 자신을 규정한 10대의 연애를 통제하기 보다는 교육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로서의 성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성교육은 헌법적으로 볼 때 행복추구권, 성평등, 교육권과 보건권에 기반하여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도출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국제법적으로 한국은 아동, 청소년, 여성의 교육과 보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인권조약을 유보 없이 승인한 국가이며 이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류민희 변호사는 국제 기준의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권리로서의 성교육을 강조하였다.

발표자들의 발언이 모두 마무리 된 후 이루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는 성교육에 관한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학교 밖 십대, 지적장애인, 군인, 교사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의를 통해 성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성폭력예방교육’이라는 표현이 제대로 된 표현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폭력이라는 표현이 주는 거부감과 공포심이 크기에 ‘성인권존중교육’ 등의 대체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성폭력예방교육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이야기가 협소해지며 일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일상에 스며있는 것들을 ‘폭력’으로 알아채고 명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두 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간담회는 진지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간담회에 모인 모두는 제대로 된 성교육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면서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나누며 힘을 얻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은 없거나 부정확하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들어야 하며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제대로 말해야 한다. 화자이자 청자로서 우리 모두는 이에 관해 책임과 권리가 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5주년 기념 후원의 밤

내 거친 눈빛과 불안한 마음과 개소25주년 후원의 낮과 밤

척_본 상담소 인턴활동가

본 상담소 개소 25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는
상담소를 아끼고 언제나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내내 이 자리를 준비했던
두 인턴(영지님과 척님)의 고생담 한 번 들어보실래요?

지난 8월 27일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개소 25주년 기념 후원의 낮과 밤>
이 있었다. 상담소의 두 인턴에겐 첫 번째 후원의 밤이었다. 우리에게 떨어진
임무는 후원회원님께 홍보전화 돌리기! 란 활동가에게 명단을 받고 두 명의
운명공동체는 눈빛으로 말했다. '이게 뭐죠..?' '진심이신 걸까요..?' 그리고 언
제나 그랬듯 그녀는 진심이었다.

두 인턴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일단 전화 앞에 앉는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전화거절을 당했다. '어휴, 다행이다. 사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어.' 그
러나 마침내(결국엔.....) 02국번에 자비로우신 후원회원님과의 전화연결에
성공했다.

놀랐지만, 프로답게 대본을 읽는다.

—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소 25주년을 맞아...”

—
후원회원님이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신다.

—
동공지진. 긴 침묵.....



그러나 각자 한 300명 정도에게 전화를 돌리고 나서 우리는 전화걸기의 왕으로 거듭났다. 물론 후원의 밤 포맷 한정이지만, 점점 기계 같아졌던 두 인턴의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주신 모든 후원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의 낮과 밤이 코앞으로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나의 인턴운명 공동체가 상담소를 떠난 후 내가 상담소의 꺾다 놓은 보릿자루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었으며, 동시에 후원의 낮과 밤에 오시는 분들에게 드릴 기념품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했다. 세상에... 상담소의 보릿자루는 드디어 적성을 찾았다. 사탕과 초콜릿은 대본에 없는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그렇지만 겨우겨우 적성을 찾았는데 호시탐탐 내 단순업무를 노리시던 선민 활동가에게 내 소중한 단순업무를 나눠드려야 했던 것만은 천추의 한으로 남았다.

두 인턴의 거친 눈빛과 불안한 마음들을 먹고 자란 개소 25주년 후원의 날이 밝았다. 막상 이날의 기억은 별로 없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처음에 영혼 충만하던 우리의 서빙은 시간이 지나자 그저 '딩동-'에 대한 반사적 행위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호프집의 준비된 알바노동자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포스사용법을 몰라 주문마다 직원에게 부탁했던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려 메뉴를 이동시키는 고급기술까지 연마했다.

물론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오랫동안 휴학해서 소식을 알기 어려웠던 친구들이 나타났고, '퀴어셀프디펜스'에서 방어를 가장한 몸싸움을 했던 분들도 만났다. 매일 보던 동네친구들도 이날만은 반가웠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먹음으로써 나의 반가움은 곧 파멸로 치달았다.

“야, 아니, 회원님 뭘 더 먹어.. 진정해”

“더 먹으면 외않되,,?”



거친 눈빛으로 친구들의 거듭된 주문을 받고 저들이 이번엔 또 뭘 먹을까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음 졸이고 있으니 어느새 후원의 낮과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밤 열시가 되어 회원 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뒷정리를 하니 상담소의 25년간의 역사가 정말 역사로 다가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렇게나 많이 드시다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나눔터의 왕 감이 활동가는 아마 이런 궁시렁거림으로 점철된 후기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오셨던 분들 모두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며 상담소의 26주년 후원의 낮과 밤엔 기필코 후원회원으로 참여할 결심을 하며 후기를 마친다. 🍷



상근활동가 쉼 프로젝트 : '과거와 미래로의 여행, 쿠마노 순례길'

낮설음과 친밀감의 거리에서

어진_본 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천주교성폭력상담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14명 활동가가
함께 일본연수를 다녀왔다.

'짧은 여행, 긴 호흡'이라는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한국여성재단)의 하나로
쉼과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명대로 여행은 정말 짧았다.

여행 충전의 힘으로 두달여를 지내오고 있는

요즘 아주 가끔씩 일본의 풍광과

그에 머물던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다.

아주 찰나, 아주 짧게- 그 때

그 고즈넉했던 표정들이 생각날 때가 있다.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말았던 새벽냄새가 여행의 설렘을 담아 보내주는 듯 했다. 산만한 가방을 메고, 버스를 기다리며 이제 곧 비행기를 탈거라는 기대에 흡지도 배고프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어느새 곧 일본에 도착해 있었다. 14명의 움직임이 담긴 여행 그것도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조합이라 쉽지 않은 여행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아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주장이 또렷한 캐릭터들 사이에

서 순간의 조율과 간극을 메워가는 것은 서로에게 긴장감과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첫날 더위와 저질 체력을 견딘 걸음걸음으로 간신히 도착한 오사카 검찰청의 <형사사법절차와 피해지원체계>에 대한 강의는 현재 내 위치를 가늠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수순으로 형사사법절차들이 개정되어 가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기억에 남는다.

둘째 날 고야산과 순례길은 일본에 대한 애정도를 오만 배쯤 높여 놓았다.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었다. 단지 '맛있는 초밥을 마음껏 먹어보자'는 낮은 수준의 기대뿐 이었다. 하지만 고야산을 보고 그 길을 걸으면서 산을 대하는 정갈하고 소소한 마음들이 눈에 들어왔다. 돌로 쌓여 있는 고즈넉한 길을 걸으며 작은 소리의 잡담을 나누었다. 왜 반성폭력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요즘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 갈등을 풀기가 왜 어려운지의 이야기들-정답 없는 한숨이지만 그 한숨이 고야산의 청정한 바람에 금세 날아가 버리는 듯 했다.



셋째 날 아라시야마의 천룡사에 닿았다. 평소 사찰에 대한 지식없음에 '사찰은 그냥 사찰일 뿐'인 나에게 천룡사는 대신 어마어마한 경치를 보여주었다. 넓은 호수, 시원한 대나무 숲길, 청정한 법당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했다. 푹푹-물소리가 나는 이 법당 한 귀퉁이에서 오래도록 앉아있고 싶었다.



고독을 느끼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뒷모습



본 상담소 활동가 선민(좌)과 어진(우)

여행은 걸음걸음으로 채워지는 듯하다. 이 사람과 걷다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다. 또 다른 사람과 걷다 보면 다른 목소리가 내 곁을 채우고 있다. 5년 만에 활동을 다시 시작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나는 지금의 활동가들이 낯설다. 아니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맞겠다. 앞을 보고 걸으며 나의 눈은 지금의 활동가들에게, 낯선 동료들의 등을 향해 있었다.

조금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힘듦을 나누고 싶지만 어찌 못하는 초조한 내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냈던 날들, 여행이라는 여유가 주는 부록 같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핸드폰 화면에 일렬로 문자들이 늘어서고 때마침 "생활인이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라고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 '서울에 왔구나, 짧은 여행이 끝났구나.' 이 활동들을 부지런히 잘하라고 주신 귀한 선물에 '앞으로 제대로 잘 해야지!' 하며 어깨에 힘을 모은다. ☺



2016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광문 여행, 간송미술관)
과거와 미래로의 여행, 쿠마노 순례길 도보
2016.9.1 - 2016.10.4 일간 20시간 본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후원

일본으로 떠나기 전 인천공항에서 단체사진 촬영!



천룡사 내 정원 풍경



청수사의 정경과 그 아래 시내풍경

한·일 세미나 : 성폭력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전망

민사로 본 한국과 일본의 성폭력 생존자의 권리

김정화_나눔터기자단

2016년 9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년 기념 한·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성폭력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전망이었습니다. 평소 성폭력에 대해 항상 형법적인 관점만을 생각했던지라 민법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것이 매우 설렘했습니다.

세미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마즈모토 가즈미 교수는 아동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시효에 대해, 객원교수이자 변호사인 요시다 요코 변호사는 일본 성폭력 관련 법 개정 논의의 쟁점에 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들으면서 한국보다 앞선 부분도 있고 뒤쳐진 부분도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요시다 요코 변호사가 설명해주신 일본 형법의 강간죄 규정은 여성의 정조만을 보호법적으로 본다는 점은 과거 한국의 형법과 유사했습니다. 또한, 그 법률에 내재된 사회의 인식도 문제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 하나가 가지는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몇 년 사이에 성폭력과 관련된 형사법이 획기적으로 진전했으나 민사상 배상제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과 피해자 권리를 발제하였고 법무법인 나우리의 이명숙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쟁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미경 소장은 실

제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사례를 들려주었는데, 담당 공무원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출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현장 재연을 함께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2차 피해 문제에 대응하는 운동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정과 그 의미를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명숙 변호사는 2차 피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국선변호사제도의 충실화 필요, 민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낮은 손해배상액 등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는 직접 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집행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꼭 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 시간에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전문상담사인 탁틴내일연구소의 김미랑 소장과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조중신 소장이 세미나의 소감과 상담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던 제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누는 현실 상황과 한 줄의 법조문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보았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아진 부분이 분명 있으나 아직도 과거의 문제점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와 같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꿔가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6 길거리괴롭힘 · 성폭력 · 성희롱 말하기대회 : 년진상 오픈라디오

To. 가해자에게, 그냥 말할 때 길거리괴롭힘을 그만둬주라

수진 나눔터기자단

‘길거리괴롭힘’이란 단어를 알게 된지 이제 막 3년이 되었다. 길거리괴롭힘이란 공공장소에서 약자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등을 의미한다. 폭력을 언어로 만들어 가시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지만, 내 앞에서 처음 언어화된 폭력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꽤 컸다. 그동안 내가 길거리에서 경험한, 그러나 설명하기 애매한 폭력들을 ‘길거리괴롭힘’으로 명명하자 한결 더 명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9월 21일, 강의가 끝나자마자 ‘길거리괴롭힘·성폭력·성희롱 말하기대회 년진상 오픈라디오’ 준비를 위해 청계광장으로 향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의 무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엔 의자를 나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의자를 세우고, 물티슈로 닦고, 포스터를 붙이고, 간이펜스를 치다 보니 날씨가 막 서늘해지던 참이었는데도 땀이 흘렀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고 예뻐서 준비하는 동안 다들 한두 번씩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날씨가 좋아 다행이라는 말을 나눴다. 준비가 끝난 뒤엔 진행을 맡으신 이진송님, 게스트로 참여하신 가수 신승은님과 은하선님 사이에 끼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러 행사 시작 시간이었다.

화려한 무대 때문인지 아니면 행사 전 틀어놓은 노래 때문인지 행사장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중 몇몇은 무슨 행사인지 묻곤 관심 없다며 짜증 섞인 얼굴로 떠났고(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좀 지켜보다 사진만 찍고 그대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진을 찍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를 부탁해야 하는데, 쉽게 삭제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픈 라디오’ 방청을 위해 청계광장으로 모였다. 나는 텍스트 중계를 위해 무대 근처에 앉아 준비된 PPT 슬라이드를 넘기고, 진행자와 게스트들의 대화를 텍스트로 작성했다. 행사 시작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경험과 게스트들의 대화와 청중들의 분노가 광장을 메웠다. 무차별 폭력은 ‘놀이’처럼 가벼워지고, 피해자는 폭력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검열하게 되고, 만연해진 괴롭힘 속에 가해자들은 자유로워졌다. 손이 시려웠지만 오가는 말들을 받아 적어야 하기에 실 수 없었다. 신승은님과 은하선님의 노래도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닿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흥얼거렸다.

이번 오픈 라디오 행사에서 제일 좋았던 점은 행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SNS 채널을 통해 청취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행사 중간중간 진행자가 SNS 채널의 대화내용을 읽으며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행사 방식은, 길거리 괴롭힘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단순히 행사 진행자나 주최자의 주장이 아닌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의지라는 것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엉덩이와 가슴을 움켜쥐고, 외모와 옷차림에 대해 평가하고, 언어적 폭력 피해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폭력에 괴로워하고 고통 받았던 기억들이 모여 말이 되고, 그 말들이 밖으로 나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광장에 있었다.

아직도 길거리괴롭힘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가 일반화되지 않았더라도 피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많을 것이기에,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나 역시 믿는다. 🙏



- 6/01, 08, 22 강남역 여성살해 추모행동 참여자 인권침해 공동대응 회의
- 6/02 "여성혐오 세상을 뒤엎자" 준비회의
- 6/02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의견서 제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기획단)
- 6/04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스 운영
- 6/06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모두의 1차 공동행동, "여성혐오 세상을 뒤엎자" 공동주최
- 6/07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임원회의 및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면담
- 6/08 인권정책연구소 이사회



- 6/09 경찰위원회 6기 모임
- 6/09 국회 주최,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참석 및 차인순 입법심의관 면담
- 6/11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부스 운영 및 참석
- 6/13 열린터 생활인 사례연구
- 6/13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회의
- 6/14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평등해야 안전하다: 중첩된 혐오를 넘어 안전할 권리를 말하기" 참석
- 6/15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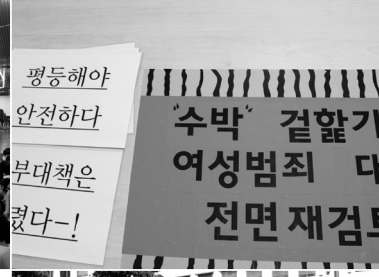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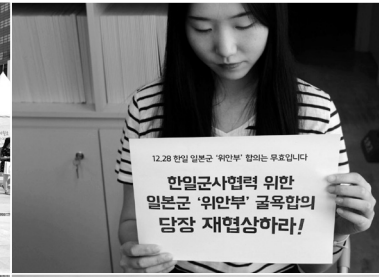
- 6/15 서울시 여성복지 거버넌스 회의
- 6/15, 28 월요법률상담(변호사: 이은의, 권정)
- 6/16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대표 면담
- 6/17 서울·울랜드 연대 촛불문화제 참석
- 6/17 "여성혐오 세상을 뒤엎자" 평가회의
- 6/18, 25 자기방어특강-싸우는 여자 1,2회기 (김기태)
- 6/2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 회의
- 6/22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 네트워크 회의



- 6/23 마포구청 지도점검
- 6/24 전환치료전문동네네트워크 회의
- 6/26 퀴어셀프디펜스 1회기(류은찬, 김기태)
- 6/27 월별사례회의(수퍼바이저 전정아, 수퍼바이저 혜나)
- 6/27 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인권과 헌법재판 강연회' 참석
- 6/28 강남역 여성살해 추모행동 참여자 인권침해 법적대응 설명회
- 6/30 열린포럼 "미래, 세대, 젠더, 매체를 통해 보는 친밀성의 새로운 양상"



- 7/01 회원소모임 남성성
- 7/01 한국여성노동자회 일일호프 참석
- 7/02 자기방어특강-싸우는 여자
- 7/03, 10, 17 퀴어셀프디펜스
- 7/05 상반기 평가회의
- 7/07, 0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 인천, 강원 활동가워크숍
- 7/07 모동잇돌 공동생활가정 설립 추진을 위한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의견서 및 연명서 제출
- 7/11, 21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기획연재 기획회의
- 7/12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 네트워크 회의



- 7/12 한국여성민우회 일일호프 참석
- 7/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호시설평가위원회 설명회
- 7/14 EGEF 오픈포럼
- 7/15 한국여성단체연합 30주년기념 단행본 워크숍
- 7/18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긴급토론회
- 7/18, 21, 25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대위 회의
- 7/18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임원회의
- 7/19 정기 이사회
- 7/19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공동대응 회의

- 7/20 2017년 계획회의(상반기)
- 7/22 반성폭력 청년 엑스포, 아동성폭력근절을 향한 100인 대학생 대합창 참석
- 7/26 한국여성단체연합 비전위원회
- 7/27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집단소송 기자회견
- 7/27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 7/28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소원 방청 및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7/28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대위 발족 및 제대로 된 수사 촉구 기자회견
- 7/28 활동가교육(양진선, 비인격적 친밀성)
- 7/29 월별사례회의(수퍼바이저 김미랑, 수퍼바이저 전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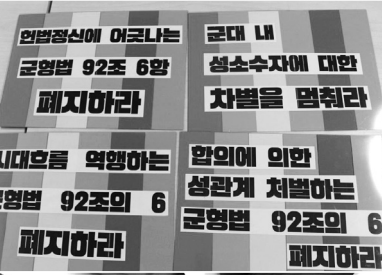
- 7/29 잘 쓰지 않아도 괜찮은, 글쓰기워크숍 1회기
- 8/01 상담자 성폭력 대응회의
- 8/03 한림대인턴십 기관평가
- 8/03 잘 쓰지 않아도 괜찮은, 글쓰기워크숍 2회기
- 8/05 유명연예인 박00공대위
- 8/08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임원회의
- 8/08, 31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 위한네트워크 내부워크숍
- 8/10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 8/11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좌담회
- 8/12 열린터 수퍼비전(수퍼바이저: 김미랑)
- 8/12 회원소모임 남성성
- 8/13-14 열린터 심신회복캠프
- 8/16 조희진 의정부지청 검사장 간담회
- 8/17, 23, 25, 30 여성가족부, 시설평가단 활동
- 8/18 여성가족부 시설평가
- 8/19 월별사례회의(수퍼바이저 김미랑, 수퍼바이저 라다)

- 8/22 월요법률상담(변호사: 장경아)
- 8/23 NO경직 라운드테이블-성교육을 말하다
- 8/23 활동가교육 '규범적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의 위계' (김순남, 성공회대 강사)
- 8/24 서울시, 거버넌스 회의
- 8/24 작은말하기
- 8/24 활동가연수 기획회의
- 8/25 길거리괴롭힘 실태분석연구 FGI
- 8/25-26 여성연말, 정책수련회(1박 2일)
- 8/26 여성성소수자결기대회 기획단회의





- 8/26 판례평석회-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 8/27 개소 25주년 기념 후원의밤
- 8/29-30 길거리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말하기대회 참여자리하실
- 8/31 남인순의원실, 여성단체 대표 간담회



- 9/01-4 활동가 쉼프로젝트(일본 연수)
- 9/05, 19 월요법률상담(김의장, 함인경 변호사)
- 9/06 여성연합 30년사 편집위원회 / 인권위원회
- 9/06, 08, 21 보호시설 현장평가 참여



- 9/07 국회 정춘숙의원실, 한국여성성리학회 산하 여성주성상담연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공동주최, "한국 상담가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대담자 법적 보호 현실 토론회"
- 9/07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면담(성폭력법 개정 관련)



- 9/07, 15, 27 제2회 여성성소수자결기대회 기획단회의
- 9/08 세월호 특유호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릴레이 농성
- 9/08 유명연예인 백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 9/09 열림터 사설평가
- 9/09 회원소모임 남성성
- 9/10 퀴어셀프디펜스 후속모임
- 9/12 한국여성단체연합 30주년사 집필진 회의
- 9/19, 26-29 시설편가
- 9/20 이사회
- 9/20 한일세미나 - 성폭력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전망
- 9/21 길거리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말하기대회 오픈라디오
- 9/21 성주재단 대표 면담(김영순 재조명 심포지움 프로젝트 건)



- 9/22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초청 여성단체 간담회
- 9/22, 26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 위한네트워크 회의
- 9/22-23 한국여성재단, 2016여성회의(사회)
- 9/26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공동대응 회의
- 9/26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 위한네트워크 캠페이너 워크숍
- 9/27 나눔터기자단 세미나
- 9/28 작은말하기
- 9/28 판례뒤집기 좌담회-군형법상 '추행죄' 합헌결정 판례평석
- 9/30 서울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 관객과의 대화
- 9/30 월별사회회의(수퍼바이저 김미랑, 수퍼바이저 노경란)

- 10/05 군형법상 추행죄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 10/05 국가보조금 통합관리망 대응회의
- 10/05 여성성소수자며들기대회 준비회의
- 10/06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의밤
- 10/07 회원소모임 남성성
- 10/07-08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총사자



- 워크숍
- 10/08 여성성소수자며들기대회 공동주최
- 10/08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내방 및 회의
- 10/10, 24 월요법률상담(변호사: 천정아, 방한술)
- 10/11 서울시경찰청, 관계기관 실무책임자 간담회
- 10/11 여성성소수자며들기대회 평가회의 1차
- 10/12 법무부 여성아동인권팀 내방 및 회의
- 10/12 쉼프로젝트 연계기관 미팅(천주교성폭력상담소)
- 10/13 백00공대위 10차 회의
- 10/17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및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10/17, 28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 위한네트워크 회의
- 10/18 주한미국대사관 부연 리 알렌 2등 서기관 내방 및 인터뷰
- 10/19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학생들 내방 및 강의
- 10/19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
- 10/20-2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장단 워크숍
- 10/21-22 상담활동가 MT
- 10/2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평가위원회 회의
- 10/26 길거리괴롭힘 실태분석 연구포럼
- 10/27 공동행동,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 10/28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간담회(여성폭력시설 네트워킹과 피해자지원 시각지대발굴)
- 10/29 낙태죄 폐지 촉구 검은시위 참석
- 10/31 한국여성재단, 디지털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회의

- 11/2-3 여성연합 이사회(합정동 마리스타)
- 11/3 여성연합 시국선언 기자회견
- 11/3 백00사건 공판 모니터링 & 공대위 회의
- 11/3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정기회의
- 11/5, 12, 19, 26 박근혜대통령 퇴진 촛불시위
- 11/7, 21 월요법률상담(변호사: 이은의, 이정혜)
- 11/8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대응회의
- 11/10 백00사건 공판 모니터링 & 공대위 회의
- 11/11 한국여성재단 짧은여행 김호승 최종보고회
- 11/11 경찰청 4대역 정책자문회 워크샵
- 11/14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관련 간담회
- 11/15 인권정책연구소 방문 / 여성연합 인권위원회
- 11/16 정기이사회 / 김삼화 전 이사 환송회
- 11/18 여성인권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부설) 개소식
- 11/18 백00사건 공대위 활동
- 11/21 청년젠더인턴십, 셀프디자인스쿨 평가회
- 11/21 여가부·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2차 피해 실태 확인 및 예방책 마련" 간담회 참석
- 11/22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공동대응 회의
- 11/24 월별사회회의(수퍼바이저 김미랑, 수퍼바이저 미스)
- 11/24 여성연합 추종위 / 백00 사건 공판 모니터링



2016. 6-11 열린터 다이어리

6월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 해야 할 일들을 바지런히 해내는 것 같이-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의 목직한 일상과 함께 미루었던 일상 밖의 과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잘 하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직업을 탐색했습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 보호되는/침해되는' 다양한 삶의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끝으로는 나의 인권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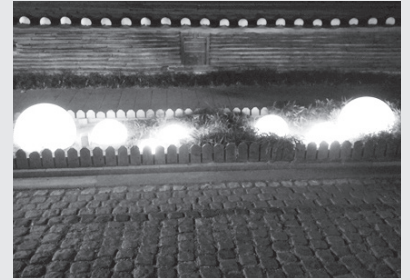
7월 오랜만에 식구들 모두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관람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뮤지컬이었지만 감동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진하게 느끼고 온 하루였습니다. 이 달부터 주 2회 자기방어 훈련을 시작하였는데 프로그램이 끝나면 온 몸이 쭈시고 결린다고 투덜대지만 실전에 버금가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열린터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이 식구들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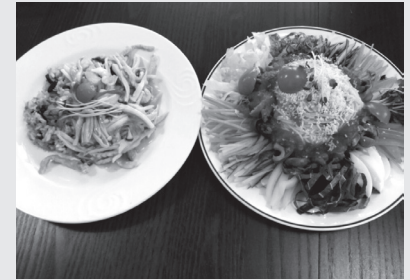
8월 여름의 정점에서 찢한 더위에 맞섰습니다. 열린터는 누구나 가는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먹고, 쉬고, 뽀는 '게으른 휴가'를 보내는 컨셉이었는데 과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열린터 식구들만의 "밤의 비밀"을 만드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자기방어훈련>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체력을 다지고, 나쁜 놈에 대한 공포감도 줄이면서 '싸우는 여자, 싸울 수 있는 여자'로의 자신감을 업! 시켰습니다.



9월 밤에는 두툼한 이불 속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열린터도 열매가 익어갈 듯 각자 안정되게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열린터 식구들을 챙겨주셔서 덕분에 아주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을, 예술의전당에서 미술을 경험하며 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렸고, '일반 가정 명절나기' 컨셉으로 함께 모여 전을 부치고, 여가를 보내며 "오랜만에 행복한 명절"을 지냈습니다.



10월 생활인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요리테라피>를 진행하였습니다. 퇴소 이후 직접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생활인들이 혼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씻고 썰고 익히고... 왈차지컬하게 서로의 작품에 대해 품평도 하면서 재밌게 참여했는데 역시나 제일 인기 있는 시간은 시식시간이었습니다. 감탄과 감동의 연속-레시피에 대한 응용까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월 두 달간의 길면서도 짧았던 요리연구 시간이 끝났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를 다듬고, 썰고, 요리조리 조물거렸습니다. 마지막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근사한 모습의 요리 앞에 노곤한 나를 마주합니다. 한숨 나는 하루 끝에, 앞에 놓인 멋진 한 접시의 음식이 위안이 됩니다. 힘들수록 제대로 먹고, 바쁠수록 천천히 먹고, 나를 대접하는 법을 연습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존자가 말하는 작은말하기

각자 닮은 듯 다른 경험을 나누며, 그 자체만으로 위안이 되고,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작은말하기입니다.
어디서도 털어놓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무거운 공기를 함께 마시기도 하지만,
이내 조용하게 서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면서
일상에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나누기도 합니다.

다름과 부족함을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라고 부를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전 사실 오늘 우울한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안전하고 내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안심하고 돌아가 또 하루를 견딜 힘을 얻습니다. -희망

요새 저 너무 행복해요. 제 모든 아픔을 이해해줄 남자친구가 있고,
새로 직장도 얻고.. 열심히 살 일이 참 기다려지는 매일입니다.
사랑합니다. 16.9.28. 성폭력 후유증... 이 길진 상처가 회복되는 여정에 작은말하기가 있어서 고맙네요.

저는 팬찮지 않습니다. 화나면 소리치고, 극도의 감정상태입니다.
얼굴과 속도 모두 다르겠지만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성폭력 후유증... 이 길진 상처가 회복되는 여정에 작은말하기가 있어서 고맙네요.

회복의 얼굴과 속도 모두 다르겠지만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걸어가고 삶을 함께 살아내었으면 해요.
오늘 말하기 한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공유한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되고 또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다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름과 부족함을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라고 부를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전 사실 오늘 우울한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안전하고 내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안심하고 돌아가 또 하루를 견딜 힘을 얻습니다. -희망

작은
말하기

생각이 많아져서 제 이야기나 대답을 잘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눠주시는 이야기들 잘 들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일을 하는 중에 떠올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어디에서도 누구한테도 말하기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데 나만의 경험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뭔가 시원하고 후련한 느낌.
한편으로는 더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 더 풀어가고 싶어요.

한남중 사라졌으면 이곳의 조명은 마치 고해성사소 같아요.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면서 치유의 공간을 차분히 느끼게 하죠.
여기만 오면 밥을 먹어도 식욕이 돋아요. 작은말하기의 신비스러움. 다정함.
공감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해요! -미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그냥 덮어버린 것이었다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굳이 회복을 완전히 하지 못해도 이렇게 작은말하기 오면서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제가 겪은 여러 번의 성폭력은 저의 처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책하는 시간을 갈도록 했던, 상처준 이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싶네요.
저의 길만을 묵묵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작은말하기가 동지가 되어주세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부디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내일을 위해 파이팅!

다독이고 힘을 내는 모든 말이
나에게 쏟아지는 다독임 같았다. -마음

오늘 팜콩님의 머리가 너무 예뻐서 기분이 절로 좋아졌어요!
식은땀이 흘렸는데.. 언제 와도 작은말하기는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데
항상 끝에 행복감 같은 게 올라와서 후련한 것 같아요. 찜찜한 것처럼,
요새 많이 행복합니다. ^^ -미연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와 지고 싶어요.
내 자신을 찾고 단단해지고 싶고요.
오늘 자리 좋았습니다. -래이

아이고, 고생했다 오늘도 -봄
작은말하기는 나의 보물창고예요.
하나같이 그 나름의 색으로 빛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어느덧 물들어가고 든든해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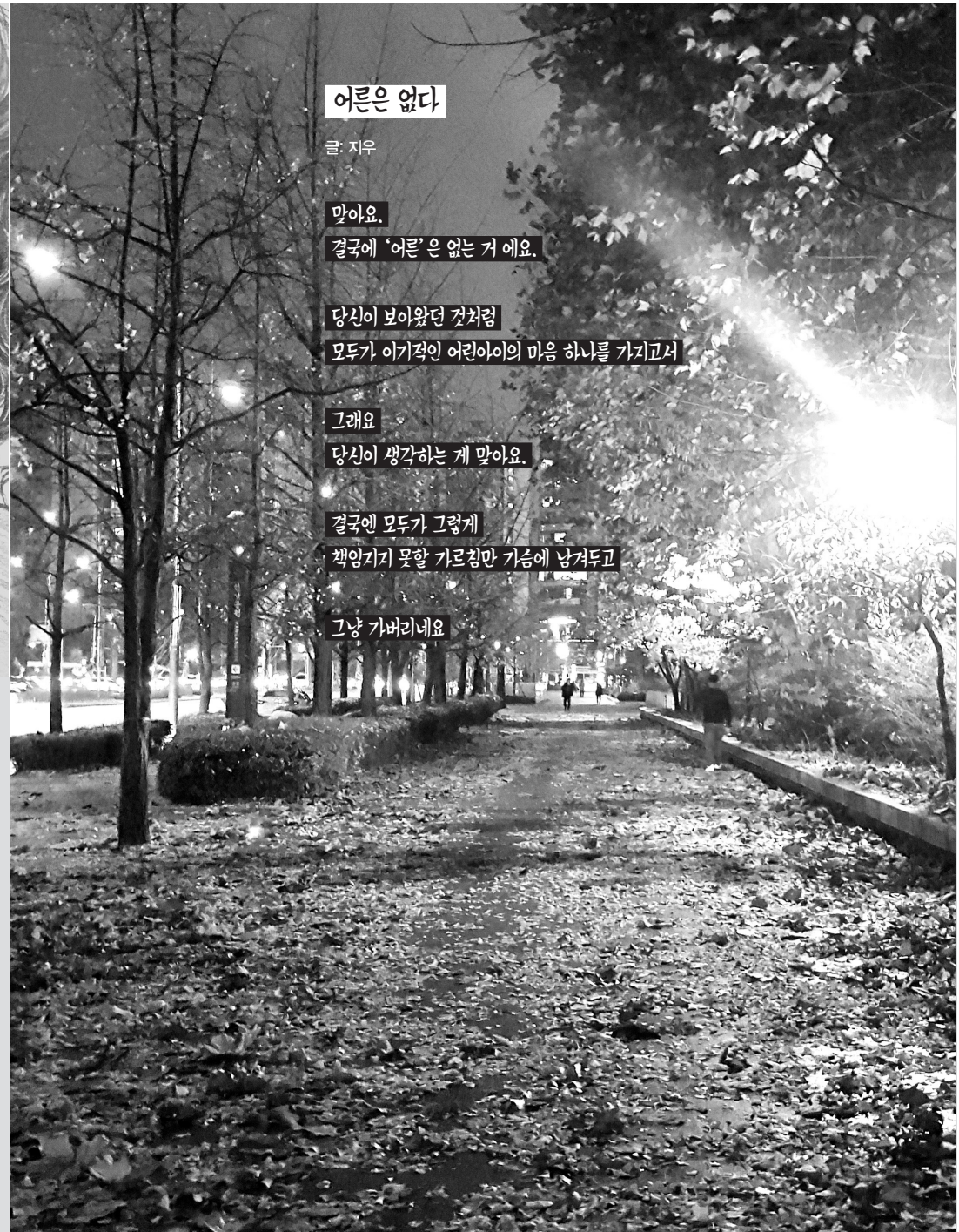


네가 어디에 있던지,
누구와 있던지,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영화 <러브로지>

글/그림: 민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른은 없다

글: 지우

말아요.

결국에 '어른'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보아왔던 것처럼

모두가 이기적인 어린아이의 마음 하나를 가지고서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말아요.

결국엔 모두가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가르침만 가슴에 남겨두고

그냥 가버리네요

상담소 OLD & NEW_후원회원 편

후원회원 당고와 희정을 만나다

인터뷰_12년차 후원회원 당고님 & 불꽃같은 신입회원 희정님
인터뷰 · 정리_레드_나눔터기자단

“생동감 넘치는 푸르른 스물다섯”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많은 후원회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나눔터에는 상담소의 오랜 후원회원이신 당고님과
최근에 후원을 시작하신 희정님의 인터뷰를 실습니다.
두 분을 각기 다른 시간, 장소에서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셔서 재미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회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계기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알게 되셨고, 어떻게 후원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하시게 되었나요?

당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나 일에 익숙해지니까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조금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단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우연히 상담소의 회원 소모임을 알게 되어 후원회원 가입과 함께 바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치유 소모임, 문화 체험 소모임, 소설 읽기 소모임 등 소모임 활동을 하다 보니 점차 상담소라는 공간과 친해졌죠. 2년 정도 소모임 활동을 하다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3년간 상담원으로 자원활동을 했고,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기획단, 인권



인터뷰 중인 당고와 레드

교육과 성교육을 결합한 인권감수성교실 기획단 등에도 참여했죠. 20년간 성폭력 사건을 지원해 온 상담소의 노하우를 담은 성폭력 사건 해결 가이드북 『보통의 경험』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희정 고등학교 때 학교로 상담소의 활동가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신 것을 통해 처음 상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활동을 하며 파이(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와의 인연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후원회원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상담소의 자기방어훈련에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씩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자기방어훈련을 하며 제가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죽어있던’ 나의 몸을 깨워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입 후에는 ‘상담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주체가 될 수 있구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상담소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 오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린다면 어떤 일일까요?

당고 제5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언중유희: 이리 오너라 씹고 놀자’ 기획단으로 참여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기획단과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사이코 드라마 작업도 하고 다이어리도 만들고 아티스트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 상상마당에서 공연까지 했는데, 많은 감정이 제 몸을 통과했지만 마지막까지 머무른 건 ‘때론 한없이 약해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생존자는 이 사회의 통념과 달리 무척 강하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 상담소에 대한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희정 아쉬운 점은 없어요. 다만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상담소에 더 많은 상근활동가들이 활동해서 활동가들의 과중한 업무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당고 상담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들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점이 아쉬워요. 최근에 단체들마다 SNS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상담소의 활동이 때로 다른 단체들만큼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죠. 또 한국 사회에 성폭력과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 활동가들의 업무가 과중해질까 봐 걱정이예요. 후원회비가 더 많이 모여서(웃음) 인력도 늘어나고 활동가들에게 자기 충전의 시간이 좀 더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인가요?

당고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혐오 현상과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페미니즘 서적을 사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출판계 종사자로서 반가운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혐오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 들어 페미니스트로서 제 안의 여성혐오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희정 저는 지금 <조각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고려인, 중국 동포, 북한 출신 이주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상근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이 들기도 하지만, 뜻 깊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조각보> 활동과는 별개로, 올해 3월에 ‘여자들도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꽃여자농구팀”을 결성했어요. 남자들만 가득한 대학교의 농구장에서 여자들끼리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경험이 참 좋아서 여전히 계속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 <불꽃페미엑션>이라는 단체를 직접 만들어 다양한 여성주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역 사건이 터진 후에는 서초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지에서 수회의 기자회견을 했고, 달빛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활동이 진화하고 있으니, 상담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희정

✎ 나에게 한국성폭력상담소란?

희정 상담소는 언제나 든든한, 저에게 “항상 열려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에요.

당고 최애,단체입니다. 최고로 애정하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랑합니다.♡

레드의 에필로그

나눔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담소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두 분을 만나고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인생의 멘토같은 당고님이 해주신 이야기로 저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당신 모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미 있다고 평가받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수렁에 빠질 수 있죠. 자꾸 자기를 갈아 넣게 되는 것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일과 분리되지 않고 그 안에 매몰되는 거죠. 좋은 의도로 활동하던 사람들도 피해생존자지원이 잘 되지 않거나 상담이 잘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버거워 하는 모습들을 보아왔어요. 내가 못한 것 같고, 좋은 일을 잘 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다보면 상처받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돼요.”

하루 5분 잇솔질로 치아건강 권장하는 여성주의공동체

살림치과 방문기

인터뷰이_레이_살림의료사회 조합사업부 팀장
인터뷰_정리_동동_나눔터기자단

10월 27일 오전 11시 나눔터기자단이 은평구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상담소의 많은 회원님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살림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의료사회)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특히 지난 8월에 '살림치과'를 새로 개원하면서
가정의학과인 '살림의원'와 운동센터 '다짐', '조합부사무실'이
모두 함께 한 공간에 통합이전을 했다고 해서
더욱 기대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 처음에 살림의료사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살림은 의료협동조합이에요. 2009년에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고민하던 비혼 여성주의자들과 여성주의자인 의료인들이 초동 멤버가 되어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마침 당시 은평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가분들이 저희에게 은평으로 들어올 것을 제안하셨어요. 은평구가 서울 지역 중에서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자살률이 높기도 하고 노인과 어린이의 인구비율이 높은 곳이었어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강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서로의 욕구가 잘 맞았어요. 2012년 2월 처음 창립을 하였고요 같은 해 살림의원이라는 가정의학과 의원을 첫 번째 의료기관으로 8월에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 최근에 살림의원에 치과를 개원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궁금해요.

저희 살림의료사회는 늘 조합원들의 욕구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내거든요. 가정의학과를 개원하고 운동센터<다짐>을 연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했었는데, 그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치과는 비싼 돈을 들여 치료하는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마침 2009년부터 살림에서 활동해오던 여성주의자인 치과의사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 같이 만들어보자고 조합원들과 결정을 하고 다시 개원을 위한 기반작업을 시작했어요.

14년 만에 욕구조사를 하고, 15년 총회에서 살림의 올해의 기조는 치과개원의 토대를 만드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죠. 열심히 조합원들을 더 모으자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16년에 이제는 진짜 개원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조합원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치과는 어떤 것인지, 이 치과의 철학은 어떠한지,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총 7번의 열린 조합원 회의 통해서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금의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

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림의원 대기실이 너무 좁다는 불만들이 제기되던 상황이라, 열심히 논의한 끝에 이곳으로 통합이전을 하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계획에는 없었지만 언젠가 더 큰 곳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그 시기를 당겨서 통합이전을 하자고 함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출자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입할 때 내는 출자금 말고도 매월 정기 출자금까지 합쳐서 3억이라는 돈이 모여 있었어요. 치과 개원을 위해서는 총 6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나머지 3억은 조합원들과 함께 모금을 결의했죠. 16명의 조합원이 일주일에 네 시간씩 세 번 나오셔서 직접 전 조합원들에게 출자에 참여해달라는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총 600명의 조합원들이 출자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기적처럼 3억 5천만 원을 함께 모아 다들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 조합원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만들어가는 살림의료사협의 살림치과가 더 궁금해지네요.

살림치과 주치의인 박인필 원장이 저희 살림의료사협에 함께하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대학생 때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는 <막달레나의 집>에 잇솔질 교육을 하는 자원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언니들이 자신의 몸을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잇솔질 교육을 한 번 했더니 수돗가에 앉아서 오롯이 자신의 몸만을 생각하는 5분을 잇솔질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거죠. 잇솔질 하나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치료나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살림의 초창기부터 함께 활동해오면서 "언젠가 살림에서 치과 만들면 자기를 고용해달라"고 이야기를 꼭 해왔었거든요. 실은 치과를 개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자원이 되어 준거죠. 박인필 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여러분이 잇솔질 안하면 그거 다 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플 때 치료만 해주는 병원이 아니라, 건강을 함께 만들고 독려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의료진이 함께 하는 거죠. 조합원과 의료진 간에 애정과 신뢰와 협동을 주고받는 관계로 치과를 만들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상담소 회원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럿이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현실

성매매 과정에서 성폭력은 가능하다

고진달래_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활동가

최근 유명연예인들에 의한 성매매와 성폭력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유명연예인 박00에 의한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연대하여 미온적인 경찰의 수사태도와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행태를 꼬집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활동가의 글을 실습니다.

방석집에서 술을 팔면서 성매매를 하는 한 중년 여성은 억울한 목소리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고 이 부분을 성폭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전화 상담을 해왔다. 방석집의 특성상 방안에 들어 앉아 술을 마시던 중에 손님은 강제로 여성을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했다. 손님은 그 전부터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로, 가게 주인의 친구였고 올 때마다 이 여성이 접대를 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술을 팔면서 매상을 올려야하는 입장에서 웃으면서 접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웃음은 불행하게도 성폭력 사건을 성립시킬 때는 늘 여성의 발목을 잡는 방해요소가 된다. 그리고 업주는 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없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우기면서 여성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라고 협박을 했다.

성매매 과정에서 성폭력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기 싫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도, SM 플레이는 무섭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건데 왜 싫으냐면서 돈을 줬으니 (구매남이) 사정을 해야 끝나는 이 게임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요구와 선택도 할 수 없다. 왜냐면,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일의 특성이 술을 마시고, 옷을 지어야하고, 옷을 벗어야하고, 술을 따라야하고, 몸이 만져지고 성적농담의 도마 위에 올려져야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성매매 과정에서 일의 속성은 언어폭력/성추행/성폭력의 그 경계를 늘상 넘나든다. 그리고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문제제기 하기가 쉽지 않다.

구매남의 무릎에 앉아 속옷을 벗고 그 자리에서 와이셔츠로 갈아입고 술을 따르는 란제리 업소가 있다. 이 업소는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고 2차를 원하는 손님에 한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란제리를 벗고 와이셔츠를 입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의 피해사례는 많다. 그러나 성추행으로 신고를 원하는 여성에게 그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하는 경찰/검찰은 여성이 업소 여성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성매매 사건으로 돌리려고 한다. 성매매 업소 안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전제가 이들에게는 있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2차를 하겠다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성의 몸을 만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업소 여성들이면 언제든 만져도 된다는 남성들의 집단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불행하게도 돈을 받은 순간 여성이 받은 성추행/성폭력의 피해는 순식간에 성매매를 한 행위자가 되어 여성 역시 조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유명연예인 사건을 봤을 때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성매매 사건으로 인지되면서 무고죄로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다.

성폭력 사건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항거불능 상태임을 입증해야하는 일은 성매매 과정 안에서는 설명해내기 어려운 모순을 안고 있다. 테이블비를 책임지며 매상을 올려야하는 입장에서 여성들은 웃음을 함께 팔아야한다. 아슬아슬한 순간에서도 웃으면서 거절해야하고, 이 진상들이 깽판을 치지 않도록 살살 달래가면서, 혹은 깽판을 치고 나서도 마무리를 잘해야한다는 업무나 매니저들의 눈치를 받으며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배운을 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구매남자들은 여자도 즐겼고 좋아했고 합의한/거래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항거불능을 입증할 수 없다. 설혹 항거불능한 상태인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법은 여성에게 되묻는다. 성폭행을 당했으면 왜 나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냐고.. 룸 안에 있는 한패거리 남성 집단에서 여성들이 도움을 구했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었을까? 이 피해를 업소 사장과 매니저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손님관리가 중요한 그들에게는 늘 여성들에게 입을 닫고 넘기라고 한다. 어딜가나 겪는 문제 여기서 묻자 하며 넘어가는 사건들이 허다하다.

돈이 지불되는 순간 성폭력의 요소는 말끔하게 삭제되는 이 현실.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혼란스럽다. 성매매 과정에서 성폭력을 주장하기가 왜 이리도 어려울까. 왜 돈이 거래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폭력'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부당한 요구도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릴까. 그리고 남자들은 성폭력보다는 기꺼이 성매매로 고소되는 쪽을 선택한다. 남자들에게는 걸려도 상관없는, 한번쯤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버린다. 그리고 액땀했네 하면서 재수 없게 걸렸음을 탓하면 된다.

유명연예인 사건은 실제 성매매 여성들의 법률 지원을 하는 현장단체에서 타격을 받는다.



여러 증거와 정황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피해는 사라지고 성매매 행위자로 여성들이 조사받게 될 때 여성들은 많은 심리적인 타격을 입는다. 성폭력의 피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성매매 사건으로 전환되어 여성들 역시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만들고, 이를 지켜보는 활동가들에게도 원치 않은 방향으로 수사가 틀어지는 사례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면서 남성들의 동맹은 더욱 공고해지는 게 아닐까. ☹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임의번호를 구하라

장여경_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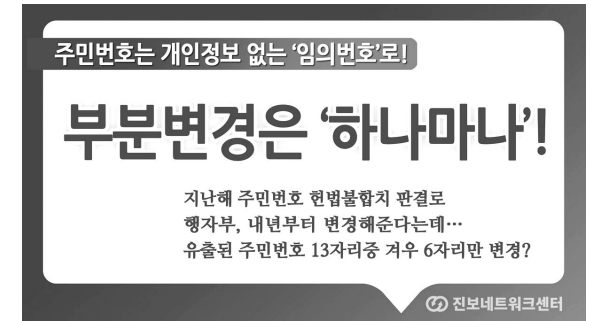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1968년 도입된 이래 최초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성폭력생존자들의 개인정보 또한 주민번호의 시스템 안에서 집적되고 있는 구조에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담지 않은 주민번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글을 공유합니다.

〈전반전〉

“그놈이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 밤길 조심하라는 거예요, 글썸!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게 잘못인가요?”

그 상담전화를 받은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무려 3천5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즈음이었다. 수화기 너머 여성분은 격앙돼 있었다.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지만, 속지 않았단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언쟁이 오고간 후, 상대방이 가족 정보, 마침내 주소를 들먹이면서 협박을 하더라. 무척 불안해진 이 분이 우리 단체에 상담을 해 온 이유는 마지막에 드러났다.



“주민번호를 바꾸게 해주세요!”
보이스피싱과 주민번호가 무슨 관계일까?
“제가 이사를 가도,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주민번호를 바꿀 수 없으면 쫓아올 수 있다구요.”

이 분은 핵심을 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주민번호에 대한 결정문에서 주민번호가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만능열쇠이자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연결자 역할"을 해서 문제라고 보았다. 주민번호를 알면 고구마 줄기처럼 다른 개인정보도 딸려오는 것이다.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바꿀 수 있는데 왜 주민번호는 안 되나요?”

그렇게 우리는 주민번호 소송을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다. 바뀌준다는 법이 없으니 못 바뀌준다는 것이었다.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행정법원으로 갔다.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로 갔다.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 4백만 건이 유출되었다. 또 다른 청구인들이 주민번호 소송에 결합했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민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한다"고 하였다. 가슴이 뛰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제도에 큰 변화가 올 터였다.

〈후반전〉

쟁점이 한 가지 더 있었다. 주민번호는 그 자체가 개인정보이다. 국가와 기관들이 알아보기 쉽게 지극히 편의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체계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유물이다. 13자리 숫자만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이 노출된다. 그래서 누군가의 주민번호를 알면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출생 시 등록된 성별이 무엇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알게 된다. 청년, 여성, 성소수자, 전라도 등 출생에 대한 질문을 들어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은 알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번호에 박혀 있는 개인정보가 국가적 폭력이다.

그러니 새 술은 새 부대에, 현재 결정에 따라 국가가 주민번호를 바꾸어 주려면 새 번호를 발급해줄 수 밖에 없다. 새 주민번호는 임의번호가 좋다. 세계 여러 다른 나라처럼 국가 번호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완강했다. 생년월일, 성별번호를 바꾸어줄 수 없다고 했다. 합치면 7자리다. 그런데 13자리 중 7자리가 출생 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나머지 6자리를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으로 보호해 주자는 헌법재판소가 머쓱할 지경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주었다.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임의번호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였다. 그런데 아뿔싸, 국회와 정부가 자기들 멋대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버렸다. 임의번호는 쏙 빼놓고, 공청회 한번 없었다. 50년 만의 주민번호 개선 기회가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20대 국회에 돌아온 진선미 의원이 임의번호 법안을 다시 발의하였다는 것이었다. 2017년 5월부터 주민번호 변경이 시작된다. 그러니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의번호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법안 발의의원들에 항의전화가 일제히 쏟아졌다. 이 법이 동성애법이라는 것이었다. 대놓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주장도 납득되지 않았지만, 이 분들이 주민번호 유출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만은 분명했다. 주민번호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자는 목소리는 억압되었다.

답답한 상황이다. 지금 국회 의안시스템에는 반대 의견만 1만 건이 달려 있다. 지구적으로 디지털 개인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는 시대에 언제까지 국가번호에 출생 연월일과 성별이 박제되어야 하는가? 임의번호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페이스북 한 줄, 트윗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의원에 **임의번호 지지의견**을 보내기
2. 주민등록법안을 심의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에 **임의번호 지지의견** 보내기

* 관련정보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 [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http://act.jinbo.net/wp/9738/>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 임의번호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마땅하다 <https://goo.gl/t5dDz1>

상담활동가 MT 후기 철원에서의 재충전 시간

조은희_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네 상담소입니다.”

안내 멘트와 함께 생존자와의 첫 대면을 하고 첫 손을 내밀어 주시는 상담 활동가들!!

상담하면서 소진되었던 에너지를 충전하고 왔습니다. 목적지는 철원, 경유지로 포천의 산정호수에서 단풍구경을 하였습니다.

산정호수가 있는 명성산은 역사로도 유명한 곳이지만 역사는 산에 올라야만 볼 수 있다고 하여 호수에서 우아하게 오리 배를 타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지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여유를 즐기려 탑승한 오리 배는 우아한 백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발판을 굴러야 했고 이마엔 어느새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자마자 테라스에서 상쾌한 공기, 잔잔한 여유, 음악까지 곁들여 잠시 해방감에 젖어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엠티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저녁시간. 먼저 인식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타성에 젖어 가볍게 취부하고 있었던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간의 약속”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MT의 세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설문지와

생기발랄한 KSVRC 상담활동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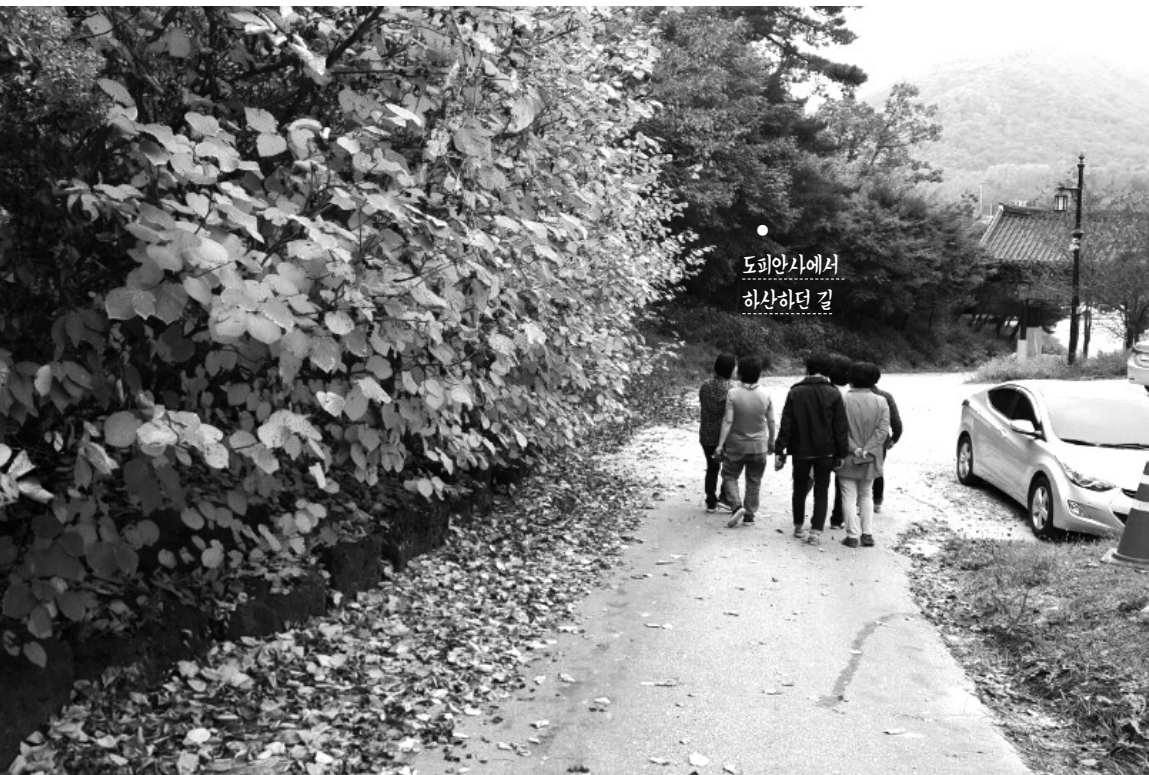


생기발랄한
KSVRC 상담활동가들

셀카로 본 자신의 특징을 적고 그 중에 무작위로 한 장을 받아 글로 표현된 특징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그 주인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셀카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특징을 찾는 새로운 시도에 다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짜증을 내기도, 웃기도 하고 배꼽을 잡아봅니다. 마지막 순서는 영화 <룸>을 보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으며 감독의 의도, 배우의 연기, 생존자를 바라보는 시선 등을 얘기하며 감동하였고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다음날 기지개를 늘어지게 켜면서 일어나 온천으로 피로도 풀고 짐을 챙기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른 활동가의 바지를 입고 자기 옷인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떤 활동가가 있었어요. 분명히 사이즈도 다르고, 길이도 길어 바지의 밑단까지 한 번 접어 입어서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ㅋㅋㅋ 해프닝은 가방 속에 꼭꼭 챙겨 넣고 한탄강협곡이 내려다보이는 멋진 카페에서 모닝커피도 한잔.

이제 임꺽정이 숨어있었다는 고석정으로 내려가서 유람선을 타고 뱃사공의 구수한 애길 들으며 철원을 공부합니다. 1월이 되면 한탄강이 얼어서 그 위에 쌓은 눈길을 걸을 수 있는 멋진 축제행사가 있다는 홍보와 함께... 더 붙어 축제가 한창인 풍물시장을 돌아보고, 임꺽정과 함께 사진도 찍어보고, 철원의 볼거리인 노동당사와 도피안사,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직탕폭포에 헛웃음도 지었습니다. 철원을 돌아보며 재충전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졌기를 기대해봅니다. ☺



도피안사에서
하산하던 길

소감 한마디

정성혜
1박2일 충분한 “휴” 가 되었습니다.
수고한 손길들에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참대에서 편히 잘 수 있게 배려해 주심에 맘이 따뜻했습니다.

로라
공간의 약속을 얘기하는 시간이 특히 좋았고,
영화감상 후 토론하는 시간도,
여유 있는 일정도 좋았습니다.

미소
산정호수와 철원의 가을 축제와 유적지 등을 구경하면서
상담생들과 친목도모도 하고
전화상담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여행이었습니다.

닉스
여유풍고 편안한
MT였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시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들, 환영합니다~

강동화, 강수지, 고예린, 고태우, 광상아, 구제덕, 김기정, 김들이, 김미란, 김성미, 김성희, 김순영, 김승연, 김영순, 김예지, 김유정, 김지은, 김지은, 김지훈(동동), 김혁, 김현주, 김활, 김희정, 나수정, 나호운, 남수민, 남슬아, 박성환, 박예리, 박은지, 박이은희, 박진영, 박효진, 박희은, 배수현, 변필진, 서승연, 서현규, 서효원, 석승민, 손관연, 송용원, 송은숙, 안소진, 오민섭, 오세규, 유예리, 이다은, 이동구, 이상구, 이승민, 이우진, 이주섭, 이해란, 이승민, 임동훈, 임서영, 장성연, 장은영, 전유미, 정지은, 조정진, 조동현, 조성화, 조은영, 조한철, 주원형, 지나위니강서센터(이주란), 최용, 최은경, 최지은, 푸른지식, 하동호, 한민지, 한정림, 허선원, 허혜진, 홍창락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100주년기념교회, aaami, 가이안선, 강가람, 강가에, 강경인, 강공내,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원, 강동화, 강동록, 강버들, 강보걸, 강수지, 강영, 강영순, 강영화, 강인화, 강정희, 강지이, 강푸른, 강현구, 강희진, 계경문, 고경나, 고경자, 고금이, 고보경, 고성관, 고예린,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태우, 고평정, 광경화, 광상아, 광옥미, 광윤이, 광현지, 구민희, 구현지, 권구홍, 권명진, 권샘이, 권소영, 권애선, 권은수, 권인선, 권인숙, 권정, 권주희, 금보경, 금철영, 김가연, 김가영, 김가희, 김경선, 김경아, 김경태, 김경희, 김경호, 김경희, 김계진, 김광만, 김광진, 김기태, 김기혜, 김나연, 김나영, 김난형, 김남이, 김다미, 김다현, 김대숙, 김도홍, 김도희,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들순, 김병진, 김보래, 김미경, 김미라, 김미란, 김미랑,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지, 김민경, 김민규, 김민기,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병효, 김보연, 김보화, 김삼미, 김상정, 김상호, 김셋별, 김서하, 김석재, 김선경, 김선미, 김선아, 김선애, 김선애, 김선영, 김성동, 김성문, 김성미, 김성자, 김성진, 김성훈, 김성희, 김소라, 김소연, 김송이, 김수, 김수경, 김수민, 김수진, 김수진, 김순영, 김순자, 김승연, 김아람, 김아름, 김아리, 김애라, 김양지, 김엘림, 김연경, 김연정, 김연우, 김연정, 김연희, 김영수, 김영순, 김영선, 김영환, 김예람, 김예지, 김옥주, 김요한, 김용란, 김원식, 김원우, 김유민, 김유숙, 김유진, 김윤경,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하, 김은희, 김은중, 김이슬, 김이슬, 김인숙, 김일문, 김재연, 김재연, 김재윤, 김정완, 김정혜, 김종수(권상범)/리치몬드, 김종용, 김종철, 김종현, 김종희, 김주연, 김주영, 김준형,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김해라), 김지훈(동동), 김진수, 김진주, 김차연, 김재연, 김재주, 김준하, 김탁환, 김태진, 김태현, 김하나, 김하나, 김해정, 김하실, 김한선애, 김해정, 김혁, 김현란,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림, 김혜민, 김혜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경,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복, 박아름, 박아름, 박아이린(Park Aileen), 박연숙, 박영수, 박영주, 박예리,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자, 박은정, 박은지,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이은희, 박인필, 박정순, 박정연, 박정오,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종선, 박종운, 박준민, 박준숙,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지현, 박진, 박진숙, 박진영, 박진표, 박창정, 박현달, 박현애,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현희, 박혜진, 박혜하, 박효진, 박희은, 박희은, 박희정, 박희주, 방기연, 방은제, 방이슬, 배경, 배성진, 배수현, 배영자, 배은경, 배자하, 배정연, 배정철, 백경훈, 백명숙, 백미순, 백미순,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윤정, 백지선, 백현, 변계희, 변순임, 변은이, 변필진, 상복스님, 서권일, 서명호, 서미란, 서민자, 서범림, 서순진, 서승연, 서용완, 서인석, 서정애, 서정연, 서정표, 서지은, 서태자, 서해인, 서현규, 서효원, 서희석, 서희순, 선희갑, 생명관, 성에당, 성지은, 손경이, 손관현, 손동희, 손명규, 손명화, 손미연, 손연성, 손우성, 손유진, 손준성, 송미현, 송민성, 송석진, 송수영, 송승훈, 송용원, 송원규, 송은숙, 송현민, 송호균, 신경우, 신경혜, 신고운, 신동현, 신명숙, 신상호, 신선애, 신성용,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훈, 신지혜, 신진희, 신필규, 신한나, 신현, 신혜은, 심수희, 심진실, 심현실, 심해린,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분순, 안분순, 안소진, 안윤정, 안재훈, 안정은, 안주리, 안지윤, 안철민, 안초롱, 안태희, 안형운, 안효선, 안효진, 안홍자,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영희, 양은희, 양은주, 양은혜, 양정운, 양창수, 양현정, 양현규, 양효준, 어진희, 엄인숙, 오경희, 오선근, 오선호, 오세규, 오세희, 오송환, 오수연, 오승민, 오승이, 오승환, 오유미, 오재형, 오정진, 오정희, 오주연, 오현정, 오현주, 우광재, 우성희, 우안녕, 우안,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창연, 원형실, 유결(고운별), 유경호, 유경희, 유계옥, 유민수, 유선옥, 유선원, 유성혜, 유세정, 유숙조, 유여원, 유영숙, 유예리, 유예리, 유지아, 유지혜, 유진, 유진영, 유혜숙, 유현미, 유환숙, 윤나래, 윤범식, 윤소정, 윤수연, 윤수연, 윤숙경, 윤양지,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영훈, 윤은정,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지원, 윤희연, 윤희영, 윤선화, 이경진, 이경미, 이경선,

이경숙, 이경은, 이경하,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계형, 이고운, 이광숙, 이규하, 이금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다은, 이다정, 이대명, 이동구, 이동규, 이동숙,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숙, 이명신, 이명희, 이미경, 이민휘, 이민희, 이병래, 이병주, 이복희, 이부덕, 이상구, 이상미, 이상연, 이상재, 이상준, 이새물, 이선영, 이성수, 이성아, 이성진, 이성태,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승구, 이승민, 이승숙, 이승진, 이시현,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근, 이영란, 이영미,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용창, 이용택, 이우진, 이옥영, 이은혜, 이원경, 이원경, 이원수, 이원훈, 이유정, 이유정, 이윤상, 이윤선, 이윤옥, 이윤희, 이은, 이은비, 이은실, 이은애, 이은영, 이인숙, 이인환, 이재순, 이재현, 이재현, 이정분,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종국, 이종근, 이종희, 이주섭, 이준별, 이준희, 이지민, 이지선, 이지영, 이지은, 이지행, 이지혜, 이지혜, 이지훈, 이지혜, 이진아, 이찬희, 이창민, 이태숙, 이태호, 이한중태, 이해사랑, 이해린, 이향심, 이향심(거북), 이향화, 이현숙, 이현정, 이현희, 이혜경,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실, 이혜정,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희진, 이희수, 이희화, 이승민, 임건호, 임경진, 임서영, 임선자, 임수연, 임순영, 임유영, 임유영, 임유청, 임자영, 임주희, 임지숙, 임치선, 임치순, 임형숙, 임홍실, 임희윤, 장규형, 장다혜, 장다혜, 장미정, 장민경, 장성연, 장성희, 장영아, 장예지, 장원균,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영, 장익수, 장재운, 장정희, 장진, 장혜란, 장효정, 장희진, 전미자, 전민주, 전병미, 전승기,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옥, 전유경, 전유미, 전은유, 전정우,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혜영,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귀민, 정기영, 정다희,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동원, 정문희, 정민이, 정보람, 정복문, 정설희, 정소린, 정수연, 정숙경, 정순희, 정슬아, 정여진, 정영미,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식, 정은선, 정인호, 정정기, 정정희1, 정정희2, 정종인, 정준애, 정지윤, 정지은, 정지현, 정지훈, 정진옥, 정진화, 정창수, 정혜랑, 정현, 정현주, 정현희, 정혜윤, 제갈함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기이 파울러, 조동현, 조무호, 조민호,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성은, 조소연, 조영선, 조용연, 조은샘,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은희, 조인석, 조인석, 조인옥, 조일, 조일래, 조정은, 조중선, 조지혜, 조진희, 조한아, 조한철, 조현아, 조혜민, 조희은, 주리아, 주명희, 주원형, 주혜명, 주혜정, 주희진, 지나위니강서센터(이주란), 지승경, 지인숙, 지인숙, 진새물, 진태란, 차선주, 차성안, 차인순, 차현수, 차현영, 채송희, 채송희, 채우리, 채현숙, 천정환, 최가람, 최강현, 최경식, 최광식, 최근우, 최기영, 최대연, 최동식, 최란, 최미선, 최미숙, 최보원, 최서란, 최성화, 최수연, 최숙희, 최신애, 최아름, 최연순, 최영애, 최영주, 최옥경, 최양열, 최용득, 최원일, 최유진, 최윤미,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정림, 최정림, 최정희, 최정갑, 최지나, 최지나, 최지영, 최지은, 최진안, 최효선, 추민주, 추정희, 추주희, 추지현, 클럽미즈9 라미체의원, 탁수정, 허동호, 허연수, 허은주, 하송희, 하주선, 하주현, 한경아, 한국아마자카마작(주),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민지, 한보경, 한승희, 한승희, 한영미, 한영미, 한이계영, 한일아, 한재현, 한전부녀회, 한정림, 한재운, 한희정, 함경진, 허남주, 허라군, 허복옥, 허선원, 허성희, 허은주, 허이화, 허정연, 허정익, 허준석, 허지은, 허혜진, 현호정, 홍광용, 홍남영, 홍민희, 홍민철,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승기, 홍승기,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창락, 홍혜선, 황동하, 황미선, 황선유, 황성기, 황성민, 황숙희, 황유나, 황은순, 황재호, 황정진, 황주영, 황지성, 황지영, 황지은

변치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강대열, 강명득,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광혜선, 김경현, 김명희, 김미주, 김재운, 김효선, 김희정, 나인선, 노길용, 노주희, 박미란, 박부진, 박윤옥, 박인필, 배경, 배순희, 배정철, 손관현, 송미현, 신상호, 유병달, 유소영, 유정화, 이경환, 이덕화, 이명숙, 이미경, 이영희, 이유정, 이해사랑, 이현상, 임순영, 장윤경, 장철우, 정명중, 정순희, 정진옥, 조인석, 조일래, 최보원, 최영애, 최진주, 하동호, 홍승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울림, 부설 쉼터 열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회원을 일괄등록 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서는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평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회원 문의: 감이 02-338-2890, ksvrc@sisters.or.kr
부설 쉼터 열림터 회원 담당 문의: 02-338-3562, yeolim94@hanmail.net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

- 천정아 변호사님의 부드러운 케이크
- 성공회대 변상우님의 구수한 옥수수 2상자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광상아기자님의 고소고소 후두과자 1상자
- 김영순 전 활동가님의 건강지킴이 자석 지압볼 20상자
- 서지원PD님의 돌돌~ 롤케이크
- 김선미님의 아삭아삭 복숭아 1상자
- 조은희 활동가님의 새콤달콤 자두 2상자
- 안선민 활동가님의 구수한 옥수수 1상자
- 정유석 전 활동가님의 구수한 옥수수 1상자
- 닉스 상담활동가님의 맛깔스런 김치 등 밑반찬
- 노경란 상담활동가님의 혈당 보충용 도너츠
- 공명 전 활동가님의 부드러운 카스테라, 힘이 불끈 박카스 2상자
- 미소 상담활동가님의 힘이 불끈 도너츠와 짜각짜각 벽걸이 시계
- 백목련 회원님의 활동가들을 위한 푸짐한 말복 점심 한 상
- 척 전 인턴활동가님의 소중한 월급으로 후원한 원두커피 2봉지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성스런 일본과자 2상자
- 라브 회원님의 새콤달콤 꿀 1상자
- 박근하 변호사님이 후원해주시는 맛좋은 쌀 30kg
- 조인섭 변호사님이 후원해주시는 그윽한 와인 40병
- 경찰청에서 보내주신 우도땅콩
- 문학동네에서 보내주신 한라봉 1상자
- 토리 전 활동가님의 보송보송 양말 18세트
- 한승연 팬클럽에서 보내주시는 쌀 100kg
-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보내주시는 홍초셋트
- 강원도 정선성폭력상담소에서 보내주시는 우리 꽃 차 세트
- 여성신문에서 보내주시는 샴프, 린스 셋트
- 정은희님의 시원한 아이스크림, 돌돌 롤케이크
- 연세대 간호학과 김수 회원님의 따스한 공정무역커피
- 이성은 원님의 돌돌 롤케이크

{ 열림터 }

- 언니네 텃밭: 주 1회, 유기농 아채꾸러미
- 암스테르담 제과점: 주 1회, 건강식빵
- 황반아님: 월 1회, 원예치료용 생화
- 나는 봄: 생리대 3 box, 생활인 안경 2개
- 이주여성인권센터: 생리대 2 box
- 김기연님: 생리대 1 box
- 옥혜숙님: 홍차 3 box, 화장품, 배 1 box
- 강호빈님: [클래식으로 만나는 영화음악회] vip 초대권 8매
- 신지은님: 미술전시회 · 영화감상 티켓 총 10매
- 안선민님: 의류 5 box
- 노길용님: 쌀 80 kg
- 시나몬님: 수제 립밤 1 box, 수제 아로마 목걸이 10개
- KDB 산업은행 & 서울시 새마을금고: 김치 20 kg
- 강서양천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 김치 30 kg
- 룩스 BB 윤민영님: 디자이너공모작 블라우스 5벌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님이 후원해주신

푸짐한 빵, 커피, 마카롱, 떡, 수박, 고데기, 의류, 청귤 2상자, 생수 3상자, 포도 1상자, 치즈케익 등